

데스크 시각



윤영기
특집·체육부장

광주시체육회의 새해 기상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회장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해 7월 이상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현재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본안 판결에서도 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의 골자는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인수 등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체육회의 잘못이라는 얘기다. 체육회는 항소를 제기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소송 휘말린 광주는 회장 공백

하지만 '항소의 실익'을 따져 보면 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이 오는 2월에는 끝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체육회 규정상 회장 임기(2023년 2월)를 1년 남겨 두기 전까지는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재선거를 하는 선거행정을 바로잡든 실효가 있다. 불행히도 법원 사정을 보면 오는 2월 안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항소심 심리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인데다 2월이면 법원 인사철이다. '법원의 시간'에 맞춰 보면 체육회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항소는 새 단체장을 뽑는 내년까지 체육회를 공전시키겠다는 전략적 의사결

은펜칼럼



박현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일본과 유럽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65세부터 74세까지를 준(準)고령인, 75세 이상을 고령인으로 나누는 추세이다. 필자는 11년 전 대학에서 정년퇴직하고 한창 '인생 이모작'이 유행이던 때에 네팔에서 객원 교수로 준고령인의 시간을 살았다.

코로나로 한국에 돌아와 살면서 75세를 맞았다. 자연스레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여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숙고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모국어를 쓰는 편안함, 기계 문명이 주는 편리함, 다양하고 맛있으며 풍성한 먹거리 등, 얼마 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을 빼고는 행복했으니 무료함과 무력감도 함께 왔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어린 아이들, 세계관이 너무 달라서 대화하기 어려운 젊은이들, 고령 운전자를 눈치 주는 사회, 다가를 메타버스(metaverse)의 3차원 가상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호기심 등 다양한 감정이 혼재했다. 네팔에는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 남아 있다.

기 고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농촌의 현실을 놓고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거의 비슷하다.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촌의 고민도 닮은 꼴이다. 쌀농사 중심 농업 소득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고 농경지 감소, 특히 우량 농지 잠식을 막아 식량 안보를 지켜 내야 하는 정책 당국의 고민 역시 같다.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 발전과는 달리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 발전 소득을 추가로 창출해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땅이 좁고 산이 많은 양국의 국토 특성을 감안하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탄소 중립 실현의 유리한 대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농촌의 영농형 태양광은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농촌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 기준 2653개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 63개(실증 연구용 태양광 57개)에 불과하다. 영

먹구름만 가득한 '민선 체육회'

정인 것이다. 질문 몇 개 던져 본다. 회장을 새로 뽑지도 못하는 공백기에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체육회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체육회장 공백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수장 공백 상태의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현상유지다. 체육회는 이런 사실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체육회가 법에 위탁한 시간에는 광주 체육인들의 시간은 없다.

시체육회가 항소심이라는 수단을 택한 데는 선거로 갈린 생활체육계 대 전문체육계 간 적대적 대치 상황이 작용했다. 광주 체육계에서 '말뚝'이 서는 사람치고 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인사가 없을 정도다. 이들 중 누군가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더라도 진영 논리로 오해받고 목살된다. '출마자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당선자를 자진 사퇴시키고 회장을 새로 뽑자'는 주장도, '쇄신을 위해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스며들 여지가 없다.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한 침묵의 연대에서 체육회는 그나마 부담이 덜한 '법대로 하자'를 택했다.

전남도체육회도 정치 바람을 타면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이 지난해부터 광양시장 출마 행보에 나서면서 체육회가 정치의 시간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광양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고 최근에는 지인들에게 광양 발전을 기억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전남체육회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김회장의 당선 소감을 아직도 기억하는 체육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애초 우라대로 체육회장직이 정치인들이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야 헌법에 보장된

것이니 뭐라 말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남 체육인들은 그의 선로 변경을 굽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애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의 행보를 다소 호의적으로 보는 인사들마저도 "체육 행정의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 시군 체육단체장들에게라도 양해를 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전남도 정치 바람 타면서 혼란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그가 정치권으로 눈을 돌렸을 때부터 이미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는 데 있다. 게다가 그가 체육회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나 심지어 체육회의 최소한 물품 구매까지도 특정 지역과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본인은 억울하다 하겠지만 이게 세태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김 회장이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시기에 맞춰 거취를 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가 혹시 '별의 순간'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선장 없이 표류하게 되는 전남 체육회는 어찌할 것인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 도체육회는 내년 새회장을 뽑기까지 도수장 공백 상태가 되지 않겠나. 자칫 광주시나 전남도체육회 모두가 수장도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올해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지 3년째다. 제도적으로 민선이 도입된 것은 맞지만 진정한 민선 체육시대는 아직 요원한 것 같다. 민선시대의 주역인 체육인들이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체육인들이 주권을 체육회에 위탁한 채 방기한다. 체육인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penfoot@kwangju.co.kr

행복한 고령인으로 살기

그간 함께했던 몇몇 젊은이들은 어버이날에 찾아오고 네पाल을 오갈 때마다 공항에 나오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어서 꽤 정이 들었다. 골목에서 뛰노는 동네 아이들은 한 세대 전의 우리 모습이고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밥 먹었는가, 차 마셨는가 묻는 것이 인사이다.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한다. 결핍이 있어서 가능한 행복, 역설적으로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실망스러운 경험도 하였다. 학생들은 아침 첫 시간에 줄줄이 지각하면서 들어가고 되나고 예의 바르게 허락을 구함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했다. 한두 사람의 과제물을 모두 베끼고 시험 때에는 반 전체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지적하고 타일하고도 부인인 나를 불편해 할 뿐, 자발적인 내적 각성이 없으니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감독자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시험 부정은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는 듯 했다. 정치인들을 도둑이라고 맹렬히 비난할 때, 자신들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해서 쓴웃음을 지은 것이다.

작년 10월 코로나가 좀 누그러진 틈을 타서 네पाल에 돌아왔다. 한인 선교사가 세운 신실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일곱 살부터 열두 살까지 21명의 학생들이 있는 크리스천 기숙학교였다.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모두 일어서서 한복소리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수업 시간에 늦은 학생들은 들어가도 되나고 허락을 구했다. 간단한 과제를 주었더니 한 학생이 아직

글을 못 익힌 친구 노트를 가져다가 대신 써 주었다. 이 초등학교에서 보는 것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것은 이미 네팔 대학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대학 교육은 초등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대학생들이 과제물을 베끼고 시험 시간에 서로 답을 알려주는 것은 부정행위 아닌 우정의 표현, 초등교육부터 길들여온 습관으로 일종의 상생 문화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의사, 간호사, 교사, 과학자, 배우 등 다양한 장래 희망들을 말했다. 영어 실력이 제법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은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고 노래하면 서 영어를 익히고 있었다. 영어는 네पाल의 공용어이고 이들의 꿈을 이루어 줄 도구이기도 하다.

이 네팔 어린이들에게 지각하지 말 것, 숙제는 스스로 할 것, 시험 시간에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자원에서 배웠다'를 쓴 로버트 풀럼(Robert Fulghum)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초등 교육의 중요성을 명쾌하게 각인시켰다.

필자는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삶속에서 네팔의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려고 한다. 보람 있고 행복한 고령인의 삶을 기대하며.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

농형 태양광 시설 용량 기준으로 보면 일본 약 800MW, 한국 약 3.8MW 규모이다. 여건이 비슷한 한국은 출발이 왜 이리 더딘가? 일본은 2003년부터 '솔라 셰어링'(Solar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솔라 셰어링은 쉽게 말해 태양에너지(Solar)를 농사와 발전으로 나뉘(Sharing)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나 실증이 늦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농업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이 힘을 합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개 실증 사이트에서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실증 결과 태양광 모듈이 만든 그림자의 영향으로 논, 밭작물은 생산량이 20% 정도 감소했고 과수 작물은 1-2주 늦게 수확하면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현장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전남 보성에는 논 600여 평에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당초 쌀 80kg 127마 수순이던 수확량이 2.47마 줄어 1년에 3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으나, 태양광 발전 소득으로 연 840만 원을 벌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농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투영된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농지 제도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영농형 태양광

이 들어서면 우량 농지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돼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고 농촌 경관 파괴 및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 구역농지'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식량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에서 농작물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태양광 가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일본식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면 농지 유실 걱정은 필요 없다. 공공성 성격이 강한 재생 에너지를 소수 자본이 독식하는 구조의 문제점은 지역 농민들이 모여 영농형 태양광 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작은 혜택이라도 오롯이 지역 주민이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 임차농과 농지 임대인의 수입 감소 문제 역시 적정 보상으로 해결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 지속, 농업인 중심, 농지 보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지적을 되새겨 봐야 한다.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를 접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운용 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을 때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늦춰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고 탄소 중립도 멀어질 뿐이다. 일본이 했다면 우리 한국도 할 수 있다.

社說

한열이 결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눈은 내리고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여사의 어머니이자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 온 배은심 여사가 영면에 들어갔다. 영결식이 열린 어제 광주에는 종일 눈이 내렸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 둔 한(恨)이 눈이 되어 내린 것일까.

이날은 배 여사의 여든세 번째 생일이었다. 영정 앞에는 고인을 위한 생일 케이크가 놓였다. 공교롭게도 당시의 생일을 맞아 그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아들 결으로 떠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한 것이다. 흘날리는 눈 속에서 이 여사의 동생인 훈철 씨 등 유족들은 조용히 흐느꼈다. 이날 '민주화운동의 대모'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 한열이 결으로 향하는 길엔 민주화운동 동지와 유가족 및 시민들이 함께했다.

배 여사는 1987년 반독재 투쟁 당시 경찰이 손 최루탄에 맞아 이 열사가 숨진 것을 계기로 소외되고 억압 받는 이웃을 위해 살아왔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평생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투사로

살며 상처를 입고 흔들리는 이들의 곁을 따뜻하게 지켰다. 민주주의로 가는 주요 길목엔 언제나 그가 있었다. 배 여사는 "한열이가 못다 만든 세상을 내가 이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했다.

유가족 회장을 맡았던 지난 1998년에는 422일 동안 국회 앞 농성을 벌여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직접 용산법대위 공동대표를 맡았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는 상심에 빠진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특히 배 여사는 쓰러지기 직전인 지난해까지도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농성장에 들러 1인 시위를 이어갔다고 한다.

오늘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한 뼘뼘씩 온 것'이라는 배 여사의 말을 우리는 기억한다. 배 여사의 영면을 애도하며 부디 하늘에서 편안하시길 바란다.

119구급차 아파트 차단기 통과도 못해서야

범범화 화재 발생 때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등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통과에는 기존 무인 차단기의 기능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게 이뤄지지 않아 적시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차나 소방차가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고유 번호(998, 999)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경찰차 542대, 119구급차 149대, 생활안전차 2대 등 모두 693대가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단지,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기존 무인 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들 업무를 시

설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무인 차단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0~300만원이 소요될 것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도 무인 차단기에 막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급차 등을 주차해 놓고 이동하거나 관리자 무소와 연락이 되면 그때야 진입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홍보와 안내도 부족해 제도 자체를 아는 주민들은 극소수이다.

춘각을 다루는 긴급 출동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제도의 조기 안착이 절실하다. 특히 광주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주민 협조가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차단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회사가 자본을 들여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기업분할이라고 한다. 기업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 A라는 전자회사가 반도체 부문을 분리해 새 회사를 만든다고 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소유 비율대로 반도체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인적분할이라고 한다. 반면 A사가 분할한 자회사의 주식을 100% 가점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기업은 핵심 사업에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의사 결정 경로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주식시장에 분할 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조개기 상장'을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조개기 상장은 대주주 입장에서 분할한 자회사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 A회사처럼 모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반도체 같은 알짜 사업이 분리돼 나가면 서 추가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된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개기 상장이

유형처럼 번지고 있는데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이다.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지난해 12월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시켰다. 배터리는 LG화학의 알짜 사업이다. 이 때문에 분리 발표 이후 LG화학 주가는 30%가량 급락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를 자회사에서 분리 상장한 데 이어 올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도 조개기 상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SSG닷컴은 이마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분할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반면 선전군 내 대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주식시장에 분할 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조개기 상장'을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조개기 상장은 대주주 입장에서 분할한 자회사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 A회사처럼 모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반도체 같은 알짜 사업이 분리돼 나가면 서 추가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된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개기 상장이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